

上疏 속에 나타난 분열 양상 연구*

맹영일**

|| 차례 ||

- I. 서론
- II. 영남 남인의 분열 양상
- III. 상소에 나타난 분열의 양상
- IV. 결론

【국문초록】

전통시대 상소는 당대 사회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상소는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자신(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상소에 잘 드러나 있다.

본 연구는 상소에 나타난 조선 후기 사회의 분열 양상을 살펴보았다. 17세기 이후 중앙의 정치세력과 연대가 미흡했던 영남 남인세력들은 향촌의 공론을 결집하여 다양한 상소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병호시비와 관련된 상소를 통해 사회의 분열 양상이 상소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병호시비는 조선 후기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조선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졌던 사건으로, 19세기 조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 중의 하나이다. 병호시비를 통해 당대 조선 사회가 분열된 양상을 일정부분 살펴볼 수 있었다. 여강서원의 사액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던 영남 남인들이 각 계열로 분열되었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소라는 텍스트를 사

* 본 논문은 제331차 한민족어문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하였다.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초빙교수

용하였다.

본 연구는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 상소를 통해 텍스트에 드러난 분열 양상을 살펴보았다. 화경당 소장 상소에는 서애계가 바라본 병호시비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서애계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여러 근거를 제시하여 상소를 작성하였다. 화경당 소장 상소에는 조선 후기 분열된 퇴계학파의 양상을 보여준다. 병호시비를 계기로 극심했던 서애계와 학봉계의 분열 양상을 화경당 소장 상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상소라는 장르는 전통시대의 분열 양상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상소, 분열 양상, 병호시비, 풍산류씨, 화경당, 영남 남인

1. 서론

최근 들어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대신 극과극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며, 사회가 나누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조정하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양극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통시대에도 나타난다. 조선 후기의 경우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당파와 당파, 가문과 가문 등이 다양한 분열 양상을 드러낸 시기이다.¹⁾ 이러한 사회의 분열된 양상은 다양한 형태

1) 『사회학사전』에서는 “분열은 인종적, 지역적, 언어적, 종교적 집단과 같은 사회적 범주의 존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초한 분화는 정치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화는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 갈등의 결과를 추구하는 정치적 조직을 낳는다. 따라서 분열은 조직 내에서 내재적이고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없

로 드러났다. 사회의 분열 양상을 직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가 거의 유일하다.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당대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당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전통시대의 경우 상소(上疏)는 당대 사회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상소는 장르적 특징으로 인해 당시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상소는 왕조시대에 간관을 비롯한 신하들이 임금에게 정사를 간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²⁾ 상소는 왕조시대 주요 언론의 하나로 문무백관은 물론 평민까지도 참여할 수 있었다. 상소는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소가 매우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³⁾ 조선시대는 관료중심으로 통치체제가 이루어져 있었으나, 공론(公論)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상소의 역할이 매우 컸다. 특히 지배층에 속하지만, 관직에 있지 않았던 유생(儒生)들의 상소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신(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상소에

는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고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영남 남인의 분열 양상을 살펴보면, 퇴계 사후 각 계열이 자파의 이익을 위해 분화되었고, 향촌 정치 조직의 면모를 지니며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영복,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20624&cid=42121&categoryId=42121>

2) 윤재환, 『상소와 비답』, 이가서, 2015, p.6.

3) 설석규에 따르면 상소는 왕의 행위와 정책의 諫諍, 관료의 부정·비리 등 특정 인물의 論罪, 정치·사상적 현안이나 정치세력 사이 논쟁의 대상을 자파의 입장에서 論事, 時政의得失을 논하고 그 救弊策을 제시하는 時務, 조정의 허가나 군주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사안에 대한 請願, 특정한 사건으로 논죄당한 인물의 변호나 被禍된 인물의 冤仰을 호소하고 상대 세력의 공격에 대한 자파의 입장을 변명하는 辨誣 등을 다루고 있다. 설석규,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 2002, pp.58~71.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상소에 나타난 조선 후기 사회의 분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7세기 이후 중앙의 정치세력과 연대가 미흡했던 영남의 남인세력들은 향촌의 공론을 결집하여 다양한 상소를 제출하였다.⁴⁾ 영남 지역은 독자적인 향유(鄕儒)의 상소활동이 두드러졌던 지역이다. 영남 유생들의 상소를 살펴보면 중앙과 지방, 혹은 영남 지방 내부의 다양한 분열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영남 지역 유생들의 상소를 통해 사회의 분열 양상이 상소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상소는 병호시비(屏虎是非)와 관련된 상소이다. 병호시비는 조선 후기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조선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졌던 사건으로, 19세기 조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 중의 하나이다. 병호시비는 안동의 병산서원(屏山書院)과 호계서원(虎溪書院, 원 여강서원)을 출입하는 영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형성해 대립을 전개하여 그 시비를 따졌던 일을 말한다. 병호시비에는 퇴계학파의 양대 산맥을 구축하면서 서인 또는 노론세력과 종사논쟁 및 북상논쟁을 전개하며 영남 사림의 공론을 주도했던 류성룡계와 김성일계의 정치·사회적 역학관계가 담겨 있으므로⁵⁾ 조선 후기 영남 남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병호시비를 통해 영남 남인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분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퇴계학을 공통으로 계승했으나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에 있어 차별적 경향을 보였던 서에게와 학봉계의 차별적 경향⁶⁾이 병호시비의 이면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4) 설석규, 위의 책, pp.47~57.

5) 김학수, 「여강서원과 영남학통-17세기 초반의 묘향논의를 중심으로」(설석규의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1)」,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p.37에서 재인용)

본고는 병호시비 관련 상소를 통해 분열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정사에서는 병호시비 관련 상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의 상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⁷⁾

II. 영남 남인의 분열 양상

영남 남인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사후 여러 분파로 분화되었다. 퇴계의 고제인 월천(月川) 조목(趙穆)·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을 중심으로 한 예안 지역의 사림,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과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을 중심으로 한 안동 사림으로 분화가 이루어졌다.⁸⁾ 이

6) 설석규, 위의 논문, p.37.

7) 한국국학진흥원,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I)-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이 책에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문종의 기탁문서 중 통문과 상소의 원문과 해제가 실려있다. 그중 상소는 풍산류씨 화경당, 고성이씨 우와주손가, 영해 영양남씨 난고종택, 달성서씨 낙동정사, 영천이씨 농암종택, 전주류씨 백죽암종택, 진성이씨 괴와고택, 진성이씨 초초암고택, 한산이씨 대산문중, 진성이씨 향산고택, 영해 재령이씨 충효당 소장의 글들이 실려 있다. 다만 병호시비와 관련된 상소는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의 글들로 병파의 논의가 담겨 있다. 호파인 학봉계의 주장을 살필 수 있는 상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만 본 연구가 병호시비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소라는 장르를 통해 사회의 분열된 양상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연구목적을 고려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의 소장 중 병호시비와 관련된 상소는 모두 12편이다.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11, 31, 34, 36, 42, 42-1, 62, 64, 67, 77, 79, 118이다. (번호는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I)-통문과 상소』의 번호를 그대로 따랐다.)

8) 퇴계 사후 영남 남인의 분화에 대한 연구는 사학계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발표에서는 설석규의 논문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성적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설석규의 「安東士林의 政治의 分化和 婚班形成」, 『안동학』 제1집, 한국국학진

들 두 지역의 사림은 정계 진출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설석규의 논의에 의하면, 조목을 중심으로 한 예안 사림은 이황의 원론에 충실한 자세를 수용하여 심학의 깊은 천착을 통해 내외(内外)를 관통하는 곧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매진하여 원칙을 고수하는 강의(剛毅) 일변도의 변모를 보였으나, 안동지역의 사림은 전반적으로 이황의 탄력적 인품을 수용하여 심학(心學)의 현실적용을 반영하는 ‘思’를 토대로, 강유(剛柔)를 겸비한 가운데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현실대응 자세를 확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류성룡이었다.⁹⁾ 즉 조목을 중심으로 한 예안지역의 사림은 학자의 심사가 올바르고 출처가 분명해야 학문적 순수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성리학 및 퇴계학의 원리적 이해에 매진하였으며, 류성룡 등 안동지역의 사림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는 처사를 중시하여 성리학과 퇴계학의 가변성을 전제로 한 현실적용의 방안을 모색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⁰⁾ 이후 안동지역의 사림은 풍산지역의 서에 류성룡 계열과 동부지역의 학봉 김성일 계열로 분화되었다. 두 계열과는 달리 현실에 관한 관심보다는 성리학의 철학적 궁극을 통해 도덕과 명분을 겸비한 군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처사형 사림이 한 부류를 차지하였다. 이는 예안에 서당을 열어 제자를 길러낸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를 주축으로 하는 계열이다. 김언기의 제자는 남치리(南致利)·정사성(鄭士誠) 등으로 안동 지방을 중심

홍원, 2002.), 권오영의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조선 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김학수의 「17세기 영남학과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등을 참조하였다.

9)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1)」,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pp.46~47.

10) 설석규, 위의 논문, p.48.

으로 내면적 수신을 통한 향촌의 교화를 우선시하였다.¹¹⁾ 이외에 남명학에 근원하면서도 퇴계학을 복합적으로 수용한 한강(寒岡) 정구(鄭逋)가 한 계열을 이루었는데, 정구는 조식을 통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출처의리를 계승하면서도 이황의 탄력적인 세계관을 토대로 성리학적 예설을 접목하였다.¹²⁾ 또 이황의 세계관에 토대를 두면서도 성리학적이기심성론의 본질적 재해석을 통해 독자성을 확보한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을 중심으로 새로운 계파가 형성되었다.¹³⁾ 이들과 달리 율곡학을 계승하면서 서인의 입장에 동조하는 세력도 있었다. 퇴계학과를 연원으로 하면서도 이이·성혼의 문묘종사론과 예송 논쟁의 과정에서 서인 계열로 전향하였다. 주로 류성룡·정경세 학맥과 장현광 학맥에 속했던 이들 중에서 서인화된 인물들이 있었다.¹⁴⁾ 이처럼 영남 사림은 퇴계사후 학문적 성향에 따라 분화되었으며, 이들은 안동과 예안 지역을 비롯한 영남지역 향촌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17세기 영남학파는 예안의 월천계, 안동 서부권의 서애·우복계, 안동 동부권의 학봉계, 성주 인동권의 한강·여헌계로 나누어져 있었고,¹⁵⁾ 향촌에서 활동하던 유일재계와 서인으로 전향한 계열이 있었다. 이중 대표적인 세력이 안동 서부권의 서애계와 안동 동부권의 학봉계이다. 학문적

11) 설석규, 위의 논문, pp.48~49.

12) 설석규, 위의 논문, p.50.

13) 설석규, 위의 논문, pp.50~51.

14) 김학수, 「17세기 영남학파의 정치적 분화-유성룡, 정경세학맥과 정구·장현광학맥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제4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7, p.216. 이 논문에는 17세기 영남 남인이 서인화된 양상의 전반적인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5) 李萬敷, 「退陶淵源筆帖跋」, 『息山先生文集』 권18, “今江右上游之論, 主西厓而及于愚伏, 星山以下之論, 主寒岡而及于旅軒, 永嘉一帶, 并稱厓鶴, 而宣城人最尊月川, 故陶山配食, 惟月川一人而已.”

성향과 정치적 관계로 인해 분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들 영남 남인들은 문묘종사와 예송 논쟁 등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었다. 17세기말 이현일을 중심으로 학봉계가 퇴계학맥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으나, 서애계와 학봉계가 분열·대립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유일재계가 남치리 추향을 추진하자 서애계와 학봉계가 함께 반대한 일은 두 계열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이다.¹⁶⁾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두 계열을 비롯해 영남 남인들은 특정 사건에 다른 입장을 드러내며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각 계열의 갈등을 조정했던 퇴계라는 존재의 위상이 약해지게 되는¹⁷⁾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분열된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다.

영남 남인의 분열 양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병호시비이다. 병호시비는 안동의 병산서원과 호계서원(원 여강서원)¹⁸⁾을 출입하는 영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형성해 대립을 전개하여 그 시비를 따졌던 일을 말한다. 병호시비는 병산서원에 제향된 류성룡의 후손들과 호계서원을 주도한 김성일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병호시비의 표면적인 내용은 4살 연상으로 관찰사를 지낸 김성일과 나이로는 아래지만 영의정을 지낸 류성룡의 호계서원 배향 위치를 정하는 문제였다.¹⁹⁾ 병호시비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병호시비는 1812년

16) 김명자, 「조선 후기 安東 河回의 豐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p.216~217.

17) 이황의 종손인 李彙寧의 「臨川鼓變」은 영남에서 각 계열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더는 퇴계의 권위가 절대적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김성윤,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의 동향-철종대 김수근 서원 건립과 고종대 병호보합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15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pp.58~64.

18) 호계서원은 1575년에 창건된 서원으로 이황을 주향으로 하였고, 류성룡과 김성일을 이후에 배향하였다.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을 호계서원에 추향하려는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이후 1817년 서애계에서 묘위천동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되었다.²⁰⁾ 그러나 이미 1805년~1806년에 영남 사현의 문묘종사 소사(疏事)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현의 서술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논란의 심화로 결국 영남 사현의 문묘종사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당시 영남 남인, 특히 서애계와 학봉계의 분열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1812년 이상정의 제자들인 김종수(金宗壽), 이사관(李師觀), 류범휴(柳範休) 등이 주도하여 호계서원에 이상정을 추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애계는 이를 거부하였다. 서애계는 이상정의 추향을 반대하면서 추향을 위해서는 위판(位版)을 움직여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후 1817년 호계서원의 위판이 천동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서애계는 호계서원의 위판이 천동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도한 사람으로 류희문과 이병문을 지목하였다. 서애계는 도내의 사람들에게 통문을 보내어 묘위의 천동을 알리고 위판을 환안하기 위한 도회를 소집하였으며, 감영에 소장을 올려 위판 천동을 조사하는 도사를 끌어내는 등의 일을 하였다. 고종대까지 위판 천동에 관한 문제로 안동지역에서는 극심한 분열이 이루어졌다.²¹⁾

19)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1)」,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pp.36~37.

20) 김형수, 「조선 후기 영남지역 여론 형성과 정치참여: 통문과 상소」,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Ⅰ)』, 한국국학진흥원, 2007, pp.44~45.

21) 김형수, 위의 논문, p.45. 병호시비에 관한 자세한 전말은 『廬江志』, 『廬江顛末』과 김명자의 「조선 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의 ‘V. 鄉村秩序의 재편과 門中의 대응’, 이재현의 「純祖대(1800~1834) 安東地域 儒林의 정치적 동향」(『退溪學과 儒敎文化』 제59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6, pp.112~154.), 김명자의 「순

III. 상소에 나타난 분열의 양상

1. 여강서원 건립과 사액 과정의 공론 형성

조선 후기에 이르러 영남 남인은 각 계열의 이해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분열이 이루어졌다. 학문 차이에 따른 출처관의 차이, 각 문중의 이해, 향촌 정치의 주도권 경쟁 등 다양한 요소는 각 계열이 분열하는데 큰 작용을 하였다. 퇴계학과 역시 퇴계 사후 월천계, 서애계, 학봉계, 유일재계, 한강계 등으로 분화되었다. 다만 퇴계학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었다. 중앙의 정치세력과 연대가 미약했던 영남 남인들은 상소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중앙정부에 제시하였다. 개인에 의한 상소가 아니라 향촌의 사람들이 모여 소사(疏事)를 위한 담당자를 선정하고 통문을 작성하여 회람하는 등의 공론을 세우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²²⁾ 지방 사람의 상소는 특정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소사에 참여한 이들의 공론이었다. 따라서 상소를 통해서 상소에 참여한 이들이 특정한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병호시비와 관련된 상소를 통해 영남 남인의 분열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병호시비의 단초는 여강서원이 처음 세워질 때 이미 품고 있었다. 여강서원은 이황을 주향으로 하고, 류성룡과 김성일을 배향하였다. 여강

조 채위기(1800~1834) 하회 풍산류씨의 현실대응과 관계망의 변화」(『국학연구』 제29집, 한국국학진흥원, 2016, pp.77~112.), 한상우의 「조선 후기 향전(鄕戰)을 통해 본 양반층의 친족(親族), 혼인(婚姻): 안동의 병호시비(屏虎是非)를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 제8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pp.69~99.) 참조.

22) 설석규의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선인, 2002, pp.45~57.)에는 조선시대 향촌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서원이 건립될 당시에는 이황만을 주향하고 있었으나, 1614년 조목이 도산서원에 종향되면서 류성룡과 김성일의 배향 논의가 시작되었다.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은 안동사림의 불만을 야기하여 여강서원에 류성룡과 김성일을 배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²³⁾ 1619년 류성룡과 김성일의 여강서원 배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선 두 사람을 배향할 것인가, 종향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는 정경세의 의견에 따라 배향으로 결정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미 당시에 김성일은 임천서원, 류성룡은 병산서원에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김성일의 위패는 1607년 임천리사(臨川里社)에 봉안되었으며, 류성룡의 위패는 1614년 병산서원에 건립된 존덕사(尊德祠)에 봉안되었다.²⁴⁾ 이들의 위패를 여강서원으로 옮기면 임천서원과 병산서원의 묘우가 비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한 이도 정경세였다. 당시 여강서원의 원장이었던 김봉조가 서애학파를 주도했던 정경세의 동의를 얻어내고, 정경세가 김윤안(金允安)·김윤사(金允思) 형제 등의 반대 의견을 잠재웠다.²⁵⁾ 이 와중에 김언기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이황에게 배운 남치리를 배향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이를 주장했던 김용(金涌)이 죽어 무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류성룡과 김

23) 廬江書院의 배향과 추향논의는 설석규의 「退溪學派의 分化和 屏虎是非(II)」(『退溪學과 儒敎文化』 제45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9, pp.311~371)의 3장 ‘配·追享 論議와 賜額’을 참조하였다. 이외 김영나의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호계서원 운영」(『조선시대사학보』 제73집, 조선시대학회, 2015)에도 당시의 상황이 설명되어 있다.

24) 『原志 追祔事實』, 『廬江志』 권 1.

25) 鄭經世, 「與金而得, 而靜 允安」, 『愚伏先生文集』 권11, 한국문집총간 68, p.197. “就有所陳廬江合享, 乃是斯文盛舉, 而二老兄以屏祠毀撤難之云, 此是人情真切處, 孰不知其未安耶, 特所重有在, 故不得不爾, 況今又有兩存之議, 二兄尤不當持難也.”

성일의 여강서원 배향이 1620년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강서원에 류성룡과 김성일을 배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우선 류성룡과 김성일의 배향에 대한 안동 및 예안 지역 사람들의 공론을 이끌어내야 했다. 배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참석했던 월천계와 남치리의 배향에 실패했던 유일재계의 이의 제기로 인해 향사(享祀) 당일 문제가 있었으나 설득을 통해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²⁶⁾ 다음으로는 류성룡과 김성일의 위패에 ‘先生’의 칭호를 쓸 수 있는지와 류성룡과 김성일의 위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당시 사림의 향론을 주도했던 정경세의 의견이 큰 역할을 하였다. 정경세는 류성룡과 김성일을 배향으로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자가 주엽계의 사당에 정자를 배향하면서 “明道先生程公, 伊川先生程公配神從享.”²⁷⁾이라고 쓴 예에 따라 ‘先生’이라는 호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또 정경세는 ‘문묘의 규식에만 의거해야지 다른 설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좌차(坐次)는 단지 문묘(文廟)의 규식에만 의거해서 해야지, 어찌 다른 설(說)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네 성인의 좌차는 당초에는 모두 동

26) 배향 사실을 알지 못했던 월천계와 남치리의 배향 실패로 불만을 품었던 유일재계의 이의 제기는 무마되었으나, 배향이후에도 퇴계학과 내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이 되었다.(설석규, 「退溪學派의 分化和 屏虎是非(II)」, pp.334~335.)

27) 鄭經世, 『答問目』, 『愚伏先生文集』 권13, 한국문집총간 68, p.231. “配享固重, 施之於兩先生, 則恐無過重之疑. 然此是儒家莫大重事, 須博詢精思, 參伍諸論以處之, 不可以恠愴之言爲決也. 全無差別, 果似未安. 然子朱子立濂溪祠於南康, 配以兩程, 而其祭濂溪文末段曰, 以明道先生程公, 伊川先生程公配神從享云云. 據此則當時位版亦書先生無疑矣. 兩程於濂溪, 雖道德齊等, 其爲師弟子則固矣, 而不嫌竝稱, 況滄洲精舍釋榮於先聖, 而濂溪以下皆稱先生, 則後學尊敬之稱, 不爲尊所壓可知. 先生字恐不可不用, 必以無別爲慮, 則依南康祭文式, 書西厓先生柳公, 鶴峯先生金公, 尤似停當. 如何.”

쪽 벽에 한 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전우(殿宇)를 모두 큰 칸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드디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모신 것입니다. 지금 두 선생을 봉안함에 있어서는 동벽에 한 줄로 모시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모시는 것도 온당합니다. 두 선생의 좌차의 선후에 대해서는 후학이 감히 망녕되이 논할 바가 아닙니다만, 마땅히 두 선생께서 평소에 서로 대하는 것이 어떠하였느냐에 의거하여 서차(序次)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더구나 나이는 서로 간의 차이가 그리 많지 않으나 작위는 서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 떨어진 자리에 있더라도 아마도 다른 의론은 없을 듯합니다.²⁸⁾

라고 답변하였다. 정경세의 이 의견에 따라 사람들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사람들의 논의 결과 여강서원에 류성룡과 김성일이 배향되었으며, ‘西厓先生 柳公’·‘鶴峯先生 金公’으로 위판에 병서하여 안치되었다. 그러나 두 신위의 위치문제는 조심스러운 문제였다. 정경세 역시 위치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다만 편지의 마지막에 “더구나 나이는 서로 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나 작위는 서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 떨어진 자리에 있더라도 아마도 다른 의론은 없을 듯합니다.”²⁹⁾라고 답변한 것은 여강서원 배향위의 위치를 정하는 기준을 판적으로 적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결국 “두 선생의 나이가 서로 다른 것은 견수(肩隨)에 미치지 못하고, 작위(爵位)가 서로 다른 것은 절석(絕席)에 해당한다”³⁰⁾라고 하여 동벽에 류성룡의 위패를, 서벽에 김성

28) 鄭經世, 「答問目」, 『愚伏先生文集』 권13, 한국문집총간 68, p.231. “只依文廟坐次, 豈容他說. 但四聖之坐, 當初皆在東壁爲一行, 後因殿宇不能皆爲大間架, 遂分東西坐. 今奉兩先生, 作一行于東壁, 未知如何, 然分坐亦穩. 二先生坐次先後, 非後學所敢妄論. 但當依二先生平日相處如何, 而爲之序次爲得, 況年齒相去不及肩隨, 而爵位之相懸, 又在絕席, 恐無異議矣.” 번역은 고전번역원의 번역을 참고하였다.

29) 정경세의 이 편지는 향후 병호시비의 상소에서 서애측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었다.

일의 위패를 안치하였다.

여강서원에 류성룡과 김성일이 배향된 후 유일재계는 거듭 남치리의 추향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의 요구는 서애계와 학봉계의 반대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³¹⁾ 이에 퇴계학파가 서애계와 학봉계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유일재계의 위상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여강서원은 건립 이후 영남 남인의 공론을 주도하였다. 여강서원은 성혼·이이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남인 세력의 공론을 주도하였으며, 1666년에는 영남 유생 1100여명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송시열의 예론을 공박하기도 하였다. 영남지역의 남인들이 공론을 정하여 상소를 올렸던 사례 중 대표적인 예가 여강서원의 사액과 관련된 일이다.

1676년(숙종 2) 안동의 생원인 이궁(李亓)이 여강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비답을 받았다. 이궁은 “안동은 문순공 이황의 선향(先鄉)인데, 이미 서원을 세워 류성룡·김성일을 배향하였으니, 액호(額號)를 내리기를 청합니다.”라고 상소하였다. 이에 숙종은 “선정(先正) 문순공 이황의 순수한 자질과 정대한 학문은 일세의 명유(名儒)가 된다. 선액(宣額)하는 일을 예조로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비답을 내렸으나, 예조에서는 예안의 도산서원에 이미 사액이 내려졌기에 안동에 서원을 겹쳐서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대하였다. 이에 숙종은 “문순공은 우리나라 유종(儒宗)이니, 비록 문묘(文廟)에 배향하였더라도 선향(先鄉)인 안동 땅에 아직 사액한 일이 없다면, 진실로 흠전(欠典)이 된다. 특별히 사액하라.”고 명하고, ‘호계서원’으로 사액하였다.³²⁾

30) 「追附事實」, 『廬江志』 卷1 原志.

31) 南致利 추향에 관한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설석규의 「退溪學派의 分化和 屏虎是非(II)」(『退溪學과 韓國文化』 제45집,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9, pp.338~346.)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영남 남인들은 여강서원의 청액을 위해 여러 차례 상소를 지었다. 각 계열을 막론하고 여러 사람이 사액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현재 남아있는 상소로는 류원지(柳元之)·이현일(李玄逸)·류세명(柳世鳴)·김임(金愼) 등의 글이 있다. 이들은 모두 여강서원의 사액을 청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이현일은 「廬江書院請額及鶴峯金先生請諡疏」를 지었는데, 여강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동시에 김성일의 시호를 청하였다. 김임은 「廬江英山書院請額疏」를 지어 여강서원과 영산서원의 사액을 청하였다. 류원지는 「廬江書院請額疏」를, 류세명은 「廬江書院請額疏」를 통해 여강서원의 사액을 청하였다. 서예계인 류원지와 류세명은 이황의 학문이 높음으로 유학을 존중하고 학문을 고취하기 위해 사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학봉계인 이현일과 김임이 김성일의 추시(追諡)와 영산서원의 사액을 함께 상소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인 목표는 여강서원의 사액이었다.

이현일의 상소를 통해 영남 남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었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들은 삼가 생각건대, 영가읍(永嘉邑)은 실로 영남의 한 도회(都會)로서 유현(儒賢)이 배출되고 선비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만력(萬曆) 계유년(1573, 선조6)에 본주(本州)의 인사(人士)들이 함께 의논하여 낙동강 상류의 한적한 곳에 사우(祠宇)를 창립하여 선정(先正) 문순공(文純公) 이황을 제사하였고, 그 후에 전 판서 정경세가 사림과 의논하여 고 문충공(文忠

32) 숙종 2년 2월 2일 甲寅 기사, 「숙종실록」 권5, 『조선왕조실록』, “安東生員李亘等上疏言, 安東, 文純公 李滉先鄉也. 已建書院, 以柳成龍·金誠一配享, 請賜額號. 答曰 ‘先正文純公 李滉純粹之姿, 正大之學, 爲一世名儒. 宜額事, 令禮曹稟處.’ 禮曹言 ‘禮安有李滉書院, 已賜額, 安東書院, 未免疊設, 不敢輕議.’ 教曰 ‘文純公乃我國之儒宗, 雖配享於文廟, 先鄉安東之地, 尙無賜額之舉, 誠爲欠典.’ 特爲賜額.”

公) 류성룡과 증(贈) 참판(參判) 김성일을 배향(配享)하였으니, 이곳이 이른바 여강서원입니다. 산천이 빙 둘러싸고 있어 땅의 형세가 한적하고 조용하여 선비들이 학문을 닦기에 좋은 곳이므로, 수십 년 이래로 한 지역의 선비들로 이 서원에 힘입어 흥기하고 성취된 자를 이루 다 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세울 때 본래 사람들이 사사로이 창건하였고 조정에서 제사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모가 엄하지 못하고 일에 미답지 못한 것이 많았고 그 후에 머뭇거리다가 점점 쇠락해졌으니, 이것이 바로 원근의 사람들이 애석해하고 식자들이 한탄하는 바입니다.

2 우리 동방에 서원이 있게 된 것은 풍기(豐基)의 백운동(白雲洞)에서 시작되었는데, 문순공 이황이 처음 만든 것입니다. 그 제도는 대체로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옛 제도를 모두 따랐습니다. 이황이 말하기를, “나라의 학교인 향교는 과거의 법령에 구애되기 때문에 서원이 선현을 존경하고 도(道)를 강론하는 아름다운 뜻에 전념할 수 있는 것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혹은 사사로이 설립한 것을 나라에서 훌륭히 여겨 사액을 명한 일도 있고, 혹은 나라에서 세우라고 명하고 사람을 가려서 교양(教養)하게 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서원을 설립한 것이 덕을 높이고 현자를 숭상하며 과거의 성현을 제사할 뿐만 아니라 실로 뜻을 숭상하는 고상한 선비가 여기에서 학업을 닦고 연마하며 여기에서 이름과 행실에 힘쓰고 도의(道義)를 담론하여 군상(君上)이 장려하고 선발해서 기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니, 풍교(風教)에 관계된 바가 어찌 적겠습니까. 지난번 이후 국론이 크게 변하고 시비가 전도되어 꺾이고 녹아 없어진 나머지 점차 비루하고 쇠한 풍속이 되었고 점차 구차하고 게으른 습속을 이루었습니다.

3 이제 막 성상의 교화가 새롭게 되어 만물이 모두 보고서 감동하여 흥기하려는 기미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때에 찬연하게 덕음(德音)을 내어 여망(興望)에 부응하기를 위의 글에 진달한 것처럼 하시어 여강서원을 예전의 편액대로 특명으로 사액해 주시어 조정에서 현자를 높이고 덕을 숭상하며 교학(敎學)을 열어 넓히는 뜻을 보이소서. 그리고 또 밝게 하교를 내려 선비들을 효유(曉諭)하시어 그곳에서 학문을 닦는 자들로 날마다 덕행과 학문의 실체에 종사해서 선왕을 노래하고 여유롭고 자득(自得)하게 하기

를 이황이 당시에 논한 뜻과 같게 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뛰어난 경륜을 품고 고결하게 지조를 지키는 선비로서 자기를 닮아 사람들을 다스리는 학문을 하려는 자들이 반드시 구름처럼 몰려가서 도의를 강명(講明)하고 풍절(風節)을 닦으며 아울러 세상을 경륜하고 세상에 유용한 학문을 해서 성주(聖主)께서 육성하고 길러 주신 뜻을 받들고 훗날 성대하게 아름다운 국운을 돕게 될 것이니, 어찌 성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한 지역에 있는 신들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실로 만세토록 무궁한 다행일 것이니,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신들이 명성(明聖)의 세상을 만나 말을 다듬을 줄을 모르고 품고 있는 생각을 곧장 진달하면서 중복의 혐의를 꺼리지 않았고, 이어 번거롭게 청하여 지극히 참람한 죄를 지었으니, 실로 만번 죽어 합당합니다.³³⁾

-
- 33) 李玄逸, 『廬江書院請額及鶴峯金先生請諡疏』, 『葛庵先生文集』別集 권2, 한국문집총간 128, 한국고전번역원, 1994, pp.389~390. “伏惟聖慈特垂聽察, 臣等伏以永嘉爲邑, 實嶺南一都會, 儒賢之所輩出, 多士之所淵藪. 萬曆癸酉, 本州人士相與合議, 就洛川上流幽絕處, 創立祠宇, 以祀先正臣文純公李滉, 其後故臣判書鄭經世謀諸士林, 以故臣文忠公柳成龍, 贈參判金誠一配食焉, 即所謂廬江書院也. 山川環抱, 境落寬閒, 允合士子藏修之所, 數十年來, 一方之士, 賴以作興成就者, 不可一二數. 惟以當初營建, 本出土林私創, 不係朝家命祀, 體既不嚴, 事多假信, 後來因循, 漸至陵替, 此乃遠近之所惜悶, 有識之所嗟痛也. 夫我東之有書院, 自豐基白雲洞始. 文純公李滉實經紀之, 其規樞條制, 大抵皆襲白鹿之故. 李滉之言曰, 國學鄉校有科舉法令之拘, 不若書院可專於尊賢講道之美意, 故或因私設而國寵命之, 或國命立之而擇人教養也. 然則書院之設不但爲崇德尙賢報祀往哲而已, 實欲尙志高蹈之士, 游息於斯, 藏修於斯, 砥名行談道義於斯, 以待君上之獎拔而器使之, 其有關於風教, 豈淺淺哉. 自頃以來, 國論大變, 是非顛倒, 摧沮銷鑠之餘, 馴致衰陋之風, 漸成偷惰之習. 屬茲聖化方新, 萬物咸覩, 稍有竦動作興之機. 若以此時, 渙發德音, 俯協輿望, 如上所陳, 廬江書院, 仍舊爲額, 特命頒賜, 以示朝廷尊賢尙德開廣教學之意. 既又明降指揮, 風示多士, 使遊處乎其間者, 日從事德行道藝之實, 歌詠先王, 優游自得, 一如李滉當日所論之意, 則士之抱負經奇, 高潔自守, 欲爲修己治人之學者, 必將于焉相率以往, 講明道義, 砥礪風節, 兼通經世有用之學, 於以仰承聖主作成培植之意, 而蔚爲他日裨補休運之資, 豈不盛哉. 非但臣等一方之幸, 實萬世無窮之幸, 不勝大願. 臣等遭逢明聖之世, 言不知裁, 有懷輒陳, 不憚重複之嫌, 繼有論請之煩, 罪極僭諍, 實合萬死.” 번역은 고전번역원의 번역을 따랐으며, 일부 수정을 하였다.

이현일의 「廬江書院請額及鶴峯金先生請諡疏」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여강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부분이며, 뒷부분은 김성일의 추시(追諡)를 청하는 부분이다. 여강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부분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현일은 우선 여강서원이 건립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573년 안동의 유림들이 모여 낙동강 상류에 이황을 제사하는 사우를 건립하였고, 이후 정경세가 유림들과 의논하여 류성룡과 김성일을 배향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또 여강서원이 들어선 지역이 학문을 하기에 좋은 곳으로, 서원의 건립 이후에 많은 학자를 양성하였으나, 사사로이 창건하여 쇠락해지게 되었음을 안타까워하였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서원이 건립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먼저 이황이 백운동 서원을 만들면서 옛 제도를 따라 만들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황의 말을 인용하여 서원의 건립 이유가 ‘덕을 높이고 어진 이를 숭상하며 옛 성현을 제사지내는 것[崇德尙賢報祀往哲]’이며 ‘뜻을 숭상하는 선비가 학업을 닦아 이름과 행실에 힘쓰고 도의를 담론하여 군주와 윗사람이 장려하고 선발해서 기용할 수 있는 것[尙志高蹈之士，游息於斯，藏修於斯，砥名行談道義於斯，以待君上之獎拔而器使之.]’으로 풍교와 관련됨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강서원에 사액을 내려주시길 원하고 있다. 사액을 내려서 조정이 어진 이를 높이고 덕을 숭상하며 교학을 높이는 뜻을 보여주길 바라며, 이황이 처음 서원을 건립했을 당시에 논의했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였다. 이현일은 여강서원의 사액을 통해 덕을 높이고 어진 이를 숭상하며, 옛 성현을 제사하며, 선비들을 교육하여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원의 건립 이유를 이룰 수 있기를 청하였다. 이 시기 영남 남인들은 계열에 상관없이 여강서원의 사액이라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었다.

2. 상소에 나타난 병호시비의 양상 - 화경당 소장 상소를 중심으로

여강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공론을 한 목소리로 냈던 퇴계학과는 점점 분열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이러한 분열양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1796년 이루어진 김성일·류성룡·정구·장현광 등 영남 네 현인의 문묘종사 운동에서 일어난 서차시비였다. 상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차가 정구·장현광·김성일·류성룡의 순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학봉계와 서애계는 이를 반대하였다. 서애계와 학봉계의 반대로 결국 나이를 기준으로 서차를 기록하기로 하였다. 이에 김성일과 류성룡이 정구·장현광의 앞으로 오게 되었다. 그런데 김성일과 류성룡의 서차가 문제로 등장하였다. 김성일과 류성룡의 순으로 이루어진 서차에 대해 서애계가 반대하였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경상우도 사림과 학봉계의 주장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서차와 관련된 논쟁은 단순히 이름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공론을 형성하는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지방 정치의 문제였다. 따라서 학봉계와 서애계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1796년의 서차시비는 이후 병호시비로 이어졌다. 1805년³⁴⁾ 안동 유림들은 다시 영남 사현의 문묘종사를 청원하였다. 당시 사현을 문묘에 배향하기 위한 상소운동을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성일과 류성룡의 서차가 바뀐 것을 서애계가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서애계는 여강서원의 위치를 따라 류성룡·김

34) 서차시비의 발단에 대해서는 학봉계와 서애계가 달리 주장하고 있다. 학봉계는 1805년, 서애계는 1806년을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설석규의 「退溪學派의 分化和 屏虎是非(II)」 논문 각주 103번 참조.

성일의 순서를 주장하였고, 학봉계는 나이 기준을 따라 김성일·류성룡의 서차를 주장하였다. 두 계열의 팽팽한 견해는 합치되지 못하였고, 결국 영남 사현의 문묘종사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애계와 학봉계의 분열은 본격화되었다. 1812년 이후 영남 사림에서는 이상정의 호계서원 추향, 위패천동 여부, 『대산실기(大山實記)』 발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났다. 이러한 분열 양상은 상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의 상소에는 병호시비에서 서애계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소가 여러 편 있다.

신이 살고 있는 안동에는 호계서원이 있는데, 선정 문순공 이황을 제사하는 곳으로, 신의 선조 문충공 류성룡과 문충공 김성일을 각각 동서의 위치에 배치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원배(元配)를 막론하고 모두 벽에서 조금 간격을 두었는데 뒤에 개독(開讀)할 때에 문묘(文廟)의 오성위(五聖位)를 봉안하는 규례를 모방하였습니다. 철향(醊享)하고 제배(躋配)할 때에 온 고을의 사람들이 문장공 정경세에게 의견을 물어 위차 의절을 든든히 정하였습니다. 문장공의 유집 <답문서목>의 “좌차(坐次)는 단지 문묘의 규식에만 의거해서 해야지, 어찌 다른 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기록이 그것입니다. 문장공이 또 “지금 문묘의 제도에 성사가 당의 중앙에 있으면서 여러 제자가 빙 둘러 모시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또 여강서원에서 두 문충공을 배향하여 모시는 날에 “이 묘문(廟門)을 다시 열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여러 서원과 다른 것이며, 또한 이동하고 바꾸는데 고려할 것은 문묘의 좌차에 따르는 것입니다.

뜻밖에 정축년 겨울에 세 유생이 근래의 유헌을 호계서원에 배향하는 일에 대해 경솔하게 발론하였기 때문에 공의(公議)가 준엄하게 일어나 묘(廟)의 모습은 뒤는 넓고 앞은 좁아 원배(元配)를 천전(遷轉)하는 데에 온당치 못하다고 분명히 말하였는데, 저들은 묘의 모습을 논의한 말에는 답하지 않고 힘써 천동(遷動)을 말하면서 조금도 미안함이 없습니다. 홀연 한

달이 지난 뒤에 원배(元配)를 몰래 옮기는 변고가 있었으니, 예전에 벽에서 띄어 조금 옮긴 것을 지금은 벽에 붙였으며, 옛날에는 뒤를 따라 개독하였던 것을 지금은 곁을 따르며, 예전에 문묘의 좌차에 따른 것을 지금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문장공의 의견을 따르는 이들이 경악하지 않음이 없어 즉시 옛 자리로 도로 봉안하고자 하니 모두 문묘의 좌차 규례를 회복시키고자 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추향(追享)에 참여하여 논하는 자들이 몰래 천전(遷轉) 한 일이 추배변사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 덮어 주고 엄호하여 터무니없이 말하기를 “이 서원의 벽 아래에 200년 동안 봉안(奉安)한 것을 죽기를 각오하고 힘껏 공격하여 도로 봉환하지 못하게 한다”라 하였습니다. 한 도(道)의 유생들이 영읍(營邑)에 일제히 호소하고 심지어 어가(御駕) 행렬에서 상언(上言) 하는 데 이르렀고, 예조에서 복계(覆啓) 한 내용에 관찰사의 직임이 조사하고 타이르고 유도하여 안찰(按察) 하는 데 있으니 모두 해당 도에 분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를 타이르고 권면하여 가부(可否)를 분명히 밝혀달라 하여 윤험을 받았습니다.

판하(判下) 하여 본도에 관문(關文)을 보낸 뒤에 본도(本道)에서 조사관을 정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하도록 신칙하였고, 조사관이 인피하는 일도 이어지고, 또 도신(道臣)의 체차가 이어져 지금까지 2, 3년을 그대로 멈춰진 상황입니다. 이미 양조가 없고 조사를 하여도 가부(可否)가 없으니, 장차 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어 모두 신칙하고 가르치옵소서.

더할 수 없이 엄한 것은 조정의 명령이고 막중한 것은 사액을 청함이니, 비록 여염의 일반 백성에게 일이 있어 하소연한다고 하더라도 판교(判敎)로 관문(關文)을 보내는 일은 오히려 중지할 수 없는데, 더구나 이 문순공을 제향하는 서원에서 암암리에 몰래 천장하는 일을 조사하라는 명이 있는 데도 시비(是非)를 정하지 못하니 한 지방 선비들의 억울한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본도에 신칙하여 속히 조사하기를 바라오니, 바뀐다고 한들 얼마나 세도(世道)의 근심이 되겠습니까. 문묘의 좌차에 따라 몰래 천동한 위패를 환안하신다면 신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³⁵⁾

위의 글은 류이좌(柳台佐, 1763~1837)가 올린 상소이다. 류이좌는 류성룡의 9대손으로 아버지 류사춘(柳師春, 1741~1814)과 어머니 연안 이씨(延安李氏, 1737~1815, 李之億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외조부 이지역의 생질인 채제공(蔡濟恭)에게 문재를 인정받았다. 나이 30에는 영남만인소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정시에 합격한 이후 영남 남인으로는 드물게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예조참판, 호조참판 등 여러 벼슬을 지냈다.³⁶⁾ 그는 채제공의 문집을 간행하고, 정경세의 연보 수정을 주도하였으며, 도산서원에서 이황의 문집을 중간할 때 책임을 지기

35)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Ⅰ)-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pp.304~305.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036> “臣所居安東地有虎溪書院, 卽先正臣文純公李○祖豆之所, 而臣祖文忠公○○與文忠公金○○分配東西坐次排設, 無論元配皆離壁而稍間, 從後而開讀, 以倣文廟五聖位奉安之規. 蓋其醖享躋配之初, 一鄉士林, 書稟於文莊公臣鄭○○, 敦定坐次儀節, 而文莊遺集答問日書中所謂只依文廟坐次, 豈容他說者, 是也. 文莊亦當日今文廟之制, 聖師中堂, 群弟環侍象, 又於該院兩文忠躋配之日有言, 曰此廟門不可復開, 此所以別異於諸書院, 而亦所以慮及於移動變改, 其依文廟之坐次也. 不意丁丑冬三儒生輕發近世儒賢進配該院之論, 故公議峻發, 明言, 廟貌之, 後廣而前窄, 元配之未安於遷動, 則彼乃不答其廟貌之說, 力言遷動, 少無未安矣. 忽於旬月之後, 元配潛遷之變作, 昔之離壁而稍間者今焉貼壁矣, 昔之從後而開讀者, 今焉從傍矣, 昔之依文廟坐次者, 今焉無可證驗矣. 凡厥遵守文莊之訓者, 莫不愕然驚駭, 卽欲還奉舊坐, 皆復文廟坐次之規, 而一邊之參論追享者, 乃以潛遷之舉, 爲出於追配邊事, 周遮掩護, 白地糊說, 曰此院之壁下奉安二百年所, 抵死力攻, 使不得還奉. 一道章甫齊籲營邑, 竟至於蹕路上言之舉, 以禮曹覆啓中, 以道臣職在按察, 以查, 以諭, 以飭, 以導, 俱無不可分付該道, 兩造誨勉, 明示可否爲辭. 蒙允. 判下行關本道之後, 自本道定查官, 屢飭行查, 而間因查官之引避繼, 又道臣之遞改, 迄此二周, 因循拋置, 旣無兩造, 而行查亦無可否之, 明示其將行辭, 皆飭導以勉誨之乎. 嗚呼, 莫嚴者, 朝令也, 莫重者, 額院也, 雖以閭閻匹庶之有事控籲, 判教行關之事, 尙不可寢格, 況此文純主享之廟, 暗地潛遷之舉, 而查諭有命, 是非莫定, 一方多士之抑鬱, 轉益深矣. 伏乞更飭本道, 使之亟速行查, 變, 是何等世道之憂. 依文廟坐次, 還奉潛遷之位焉, 臣無任云云.”

36) 권오영, 「柳台佐의 생애와 학문성향」, 『동양학』 제76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9, pp.133~155.

도 하는 등 당시 영남 남인, 서애계의 주요 인물이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하회에 머물면서 향론을 주도하였다. 특히 병호시비 중에 서애계의 의론을 주도하였으며, 대표로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다. 류이좌의 상소에는 병호시비에 관한 서애계의 의론이 잘 드러나 있다. 류이좌의 상소를 비롯한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 상소 중 병호시비 관련 상소는 대체로 일정한 형식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병호시비의 계기를 설명하고, 이 논의가 잘못되었음을 배향 당시의 논의를 근거로 증명한 후, 자신들의 요청대로 위패의 위치를 되돌려 달라고 주장하였다.

서애계는 ‘위패천동(位牌遷動)’이 이상정을 호계서원에 추향하려고 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위에 인용된 상소도 이상정을 호계서원에 추향하고자 한 일과 류성룡과 김성일의 위차가 변동된 일을 거론하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소에서 위패가 몰래 옮겨졌으니[潛遷]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還奉]고 하였다. ‘潛遷’과 ‘還奉’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서애계와 학봉계의 갈등 양상을 잘 보여준다. 위패를 움직인 행위 자체를 ‘潛遷’으로 표현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또 ‘還奉’이라 하여 잘못된 일을 정상적인 상태로 고쳐야 한다는 서애계의 생각을 드러내었다.³⁷⁾

위의 상소에서는 이상정을 ‘近世儒賢’으로 표현하였는데 다른 상소에서는 이상정과 그의 제자들을 직접 거론하고 있다. 이상정은 18세기 영남 학맥을 대표하던 학자로 학봉계의 인물이었다. 학봉계는 퇴계의 학통이 ‘이황-김성일-이상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고, 이상정을 호계서원에 추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던 듯하다. 이에

37)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 상소에서는 위패천동과 관련하여 ‘潛遷’, ‘還奉’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에게에서는 이상정의 추향을 받아들이 수 없었다. 류이좌의 상소로 보이는 화경당 소장의 다른 상소에 “十餘年前贈參判臣李象靖之門生本孫輩, 輕發該院追拜之論.”³⁸⁾라는 서술이 보이는데, 이 서술은 이상정의 추향논의를 계기로 하여 위판이 옮겨졌다는 서에게의 생각을 잘 보여 준다.

병자년 가을에 증 참판 이상정의 본손과 문하생 약간명이 이상정의 여강 서원 추향의 논의를 가며 내었습니다. 이에 도내의 많은 선비가 통문을 돌려 엄히 배척하였는데, 그 글에서 서원 묘(廟)의 모습은 뒤는 넓고 앞은 좁아 원배(元配)의 위치를 옮길 수 없다는 말이 있었고, 문장공의 이 묘문(廟門)을 다시 열어서는 안 되는 말로 글을 지었습니다.³⁹⁾

서에게는 이상정을 추향하게 되면 호계서원의 내부가 앞이 좁고 뒤가 넓어[後廣而前窄] 배위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된다.⁴⁰⁾ 이는 배향 당시의 논의, 즉 정경세의 ‘위패의 천동 불가’라는 의견과 어긋나게 된다. 서에게는 이 점을 근거로 들어 이상정의 추증을 반대하였다. 또 학봉계의 이상정 추증 논의를 ‘輕發’로 표현하여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류이좌는 상소에서 서원이 세워지고, 배향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38)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Ⅰ)-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pp.277~278.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011>

39)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Ⅰ)-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pp.379~380.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079> “丙子秋, 贈參判臣李象靖本孫門生若爾輩, 輕發李象靖追配該院之論, 故道內多士發文嚴斥, 而其發文中以該院廟貌之後曠前窄, 元配位之不可遷動, 及文莊不開門之語爲辭矣.”

40) 호계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었고, 1973년 안동댐의 건설로 인해 원래 서원이 있던 자리가 수몰되어 실제 모습을 알 수 없다. 다만 서원의 앞뒤 공간이 좁다는 기록이 여러 글에 남아있을 뿐이다.

뒤, 위패가 옮겨진 일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류이좌는 먼저 정경세의 의견을 언급하여, 류성룡과 김성일의 위차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웠다. 류이좌는 정경세의 편지에서 “좌차(坐次)는 단지 문묘(文廟)의 규칙에만 의거해서 해야지, 어찌 다른 설(說)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내용을 언급하여 배향 초기의 위차가 문묘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설명하였다. 배향 당시의 위차를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경세의 의견을 자신들 논의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서애계는 정경세가 이황의 적통을 이은 인물로 보고 정경세의 의견에 권위를 부여하였다. 화경당 소장 상소에서는 정경세를 “嶺南之以程朱尊仰者, 李文純○也, 文純之後以道統尊居者, 鄭文莊○○也.”⁴¹⁾, “文純海東之朱子也, 文莊又是淵源嫡統之所尊慕, 而文純之位版無難移動, 文莊之正論.”⁴²⁾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정경세를 퇴계의 학맥을 잇는 인물로 그 권위를 높이려 한 것이다. 퇴계의 뒤를 잇는 제자로서 정경세의 주장은 확고한 권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학의 추향은 조정에서도 엄히 금지하는 일입니다. 선정(先正)의 묘우(廟宇)는 그 일이 더욱 특별한데 하물며 우리 서원의 원배(元配) 좌차(坐次)는 실제 문장공 정경세가 당시의 여러 선배와 의논을 주고받아 결정하여 여러 서원과 다른 것입니다. 문장공 문집의 ‘다만 문묘의 좌차를 따를 뿐 어찌 다른 설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외워 전하는 것입니다.⁴³⁾

41)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011>

42)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079>

43)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031> “國學追享, 朝禁截嚴, 先正廟宇事體尤別, 況此院元配坐次, 實是文莊公臣鄭○○與一時諸先輩, 往復敦定, 別異於諸院者. 故文莊遺集中, 只依文廟坐次, 豈容他說之語, 國人之所共傳誦也.”

이처럼 서애계는 정경세의 의견을 주요 근거로 삼아 논지를 전개하였다. 또 서애계는 학봉계에서 제시한 근거를 논파하여 자파 주장의 합리성을 주장하였다. 학봉계는 위차의 변동이 가능함을 정조대에 있었던 김인후(金麟厚)의 문묘 배향의 예를 근거로 제시하였다.⁴⁴⁾ 1796년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하면서 서쪽에 있던 이이 이하 3명의 신위를 동쪽으로, 동쪽에 있던 성혼 이하 3명의 신위는 서쪽으로 옮겼다. 이때 시대의 선후에 따라 차례를 정하여 김인후의 신위를 이언적의 아래로 정하였다.⁴⁵⁾ 학봉계는 이 일을 근거로 하여 김성일의 위패와 류성룡의 위패를 옮기는 일에 근거로 삼았다. 서애계에는 정경세의 ‘只依文廟坐次, 豈容他說者’라는 의견을 근거로 위패를 옮기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학봉계에서는 김인후의 문묘 배향시의 사례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두 주장 모두 문묘와 관련된 내용을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자신들의 주장에 따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류이좌는 상소에서 자신들이 감영에 상소하고, 순조의 참배길(1817년 9월)⁴⁶⁾에 어가에 직접 상언하여 아뢴 일을 언급하면서 조정의 윤허를 받았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줄 것을 청하였다. 이는 국왕에게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음을 통해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려는 서술이었다.

류이좌의 상소에는 병호시비와 관련하여 자파의 주장이 잘 드러나 있다. 자신들이 병호시비의 발단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자신의 주장들

44)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079> “彼乃援引文正公臣金麟厚陞庶時, 東西庶位版遷動之事.”

45) 「정조실록」 20년 11월 6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46) 순조는 1817년 9월 2일에 경릉, 명릉, 홍릉에 가서 제사 지냈다. 아마 이때 상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왜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류이좌 혼자만의 논의가 아니라 당시 병호시비의 당사자인 서에게 전체의 논의이다. 이 상소에 기록된 텍스트를 통해 당시 영남 남인의 분열 양상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상소라는 텍스트를 통해 조선 후기 영남 남인의 분열 양상을 살펴보았다. 17세기 이후 중앙의 정치세력과 연대가 미흡했던 영남의 남인들은 향촌의 공론을 결집하여 다양한 상소를 제출하였다.

영남 남인들은 퇴계 사후 여러 계열로 분화되었고, 19세기에 이르러 그 분열 양상은 극심해졌다. 그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병호시비이다. 병호시비는 안동의 병산서원과 호계서원(원 여강서원)을 출입하는 영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형성해 대립을 전개하여 그 시비를 따졌던 일인데, 영남 사림의 공론을 주도했던 류성룡계와 김성일계의 정치·사회적 역학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시비는 퇴계학을 공통으로 계승했으나 여러 측면에서 차별적 경향을 보였던 서에게와 학봉계의 분열 양상이 잘 드러난 사건이다.

본고는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 상소를 통해 텍스트에 드러난 분열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강서원의 사액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던 영남 남인들은 시간이 흘러 각 계열로 분열되었다. 각 계열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소라는 텍스트를 사용하였다. 본론에서 살펴본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의 상소에는 퇴계학과가 서

애계와 학봉계로 분열된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이 자세하게 드러난다. 상소에는 서애계가 바라본 시비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 학봉계의 주장을 반박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합당함을 내세웠다. 본고에서는 서애계와 학봉계가 병호시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서애계의 시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상소라는 텍스트 속에 조선 후기 사회의 분열 양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류성룡과 김성일의 위패를 동시에 배향하기 위해 힘을 합쳤던 두 계열은 이후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분열되어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였고, 이는 조정에 올리는 상소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분열의 양상이 상소라는 텍스트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음을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 상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廬江志』, 단국대학교 소장(연민문고) /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廬江顛末』,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金 愼, 『野庵文集』(長阜世稿),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柳世鳴, 『寓軒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147
柳元之, 『拙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속28
李萬敷, 『息山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178
李玄逸, 『葛庵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128
鄭經世, 『愚伏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68
『조선왕조실록』
한국국학진흥원,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Ⅰ) - 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pp.1-871.
- 고영복,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 pp.1-643.
권오영, 『조선 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pp.1-510.
설석규,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 2002, pp1-477.
윤재환, 『상소와 비답』, 이가서, 2015, pp.1-560.
- 권오영, 「柳台佐의 생애와 학문성향」, 『동양학』 제76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9, pp.133-155.
김명자, 「조선 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pp.1-292.
_____, 「순조 재위기(1800~1834) 하회 풍산류씨의 현실대응과 관계망의 변화」, 『국학
연구』 제29집, 한국국학진흥원, 2016, pp.77-112.
김성운,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의 동향 - 철종대 김수근 서원 건립과
고종대 병호보합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15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pp.43-96.
김영나,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호계서원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제73집, 조
선시대학회, 2015, pp.115-152.
김학수, 「17세기 영남학파의 정치적 분화 - 유성룡, 정경세학맥과 정구·장현광학맥

- 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제4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7, pp.215-280.
- _____,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1-421.
- 김형수, 「조선 후기 영남지역 여론 형성과 정치참여: 통문과 상소」,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Ⅰ)』, 한국국학진흥원, 2007, pp.13-50.
- 설석규, 「安東士林의 政治的 分化和 婚班形成」, 『안동학』 제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2, 95-147.
- _____,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1)」,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pp.85-121.
- _____, 「退溪學派의 分化和 屏虎是非(Ⅱ)」, 『退溪學과 儒敎文化』 제45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9, pp.311-371.
- 이재현, 「純祖대(1800~1834) 安東地域 儒林의 정치적 동향」, 『退溪學과 儒敎文化』 제59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6, pp.111-154.
- 한상우, 「조선 후기 향전(鄕戰)을 통해 본 양반층의 친족(親族), 혼인(婚姻): 안동의 병호시비(屏虎是非)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8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pp.69-99.

한국고전종합DB(한국고전번역원) <https://db.itkc.or.kr/>

유교넷(한국국학진흥원) <https://www.ugyo.net/>

Abstract

A Study on Cleavage Aspects of *Sangso* with *Byungho* Debate

Maeng, young-il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look at cleavage aspec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society that appeared in *Sangso*. *Yongnam* Southerners, who lacked solidarity with political forces of the central region since the 17th century and filed various *Sangso* by unifying public opinions in their regions. This paper looked at how cleavage aspects of the society were expressed in *Sangso* through *Sangso* related to *Byungho* debate. The *Byeongho* Debate was centered around *Ando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was one of the important clues to understand *Joseon* society in the 19th century because the entire *Joseon* society was interested in it. Through the *Byeongho* debate, I was able to look at some of the divided aspects of *Joseon* society at that time.

This study examined cleavage aspects that appeared in the text through *Sangso* possessed in *Hwageongdang* of *Pungsan Ryu* Clan. Southerners in *Yongnam* expressed their claims through text called *Sangso*. *Sangso* possessed in *Hwageongdang* is shown in divided aspects in the late *Joseon* society in detail. This process, in which two affiliations that joined the power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ir position, was clearly revealed in *Sangso*.

Key Words : *Sangso*, Cleavage Aspects, *Yongnam* Southerners, *Byeongho* Debate, *Hwageongdang*, *Pungsan Ryu* Clan

맹영일

소속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초빙교수

전자우편 : yimaeng@naver.com

이 논문은 2021년 8월 22일 투고되어
2021년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9월 25일 게재 확정됨.